

# 부처를 만나게 된다

으로 무수한 번뇌가 싹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심(下心)하는 것을 비굴하다고 생각해서는 안돼요.

《678호 화엄사 조실 도천 스님》

●…… 모든 사람들은 꿈을 가져야 합니다. 희망과 미래를 지향하는 서원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끊임없는 기도 정진을 해야 합니다.

《680호 각원사 회주 법인 스님》

●…… 내가 지금 차 맛을 물었는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이 어디 있겠어요? 그 맛을 글로 표현할 수가 있나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나. 몸이 다른데 어떻게 전달이 되겠는가? 답은 직접 마셔보라는 것이지요.

《682호 범주사 복천선원장 월성 스님》

●…… 행복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행복하면 됩니다. 지금 바로 행복한 상태에 있어요. 현재에 있는 행복을 확인하는 것이 '행복론 1번'입니다. 지금 확인되면 그게 행복한 겁니다. 마치 현재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해 놓고 무슨 준비를 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안 됩니다. 불행의 구실을 간단합니다. 내 인식 주체가 무엇을 대함에 있어 그대로 수용하지 못할 때 괴로워집니다.

《683호 (재)행복마을 이사장 용타 스님》

●…… 이 대우주에는 '내 것'이라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데, '내'라는 단어가 하나 붙고 우리는 평생 아귀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가슴에 '내'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으니 가족을 부처님으로 모시지 못하고, 그러니 언제나 충돌이 오는 것이지요. 불상 앞에서 복 달라고 절을 하면 복이 옵니까? 내 집안에서 다루는 소리가 나지 않아야 하고 웃음소리가 나와 복이 오는 것입니다.

《684호 경주 함월사 조실 우룡 스님》

●…… 달은 언제나 있지만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중생이 본래 부처라도 무명에 가려져 청정성을 못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밝은 달을 보지 못해 윤회하는 것입니다.

《685호 극락선원 회주 금담 스님》

●…… 참 불공이라 목탁을 두드리며 불단에 음식을 차려놓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부처님처럼 섬기는 것이 참 불공입니다.

《686호 해월정사 회주 천제 스님》

●…… 육심을 충족시키려 불교를 믿으니 행복이 없소. 물질 가지려는 욕심을 버릴 때 행복한 것이요. 불만족에는 행복이 없어요. 탐진치를 버리세요. 그렇지 않으면 극락은 없습니다. 위기도 인연에 의해 맺어진 것이요. 자기가 만들고 누리는 것이요. 부처님이 만든 위기는 아니죠? 우리가 지은 복이 거기까지니까 내가 만들어 사는 겁니다.

《687호 각원사 조실 의룡 스님》

●…… 평상심이라 때 묻지 않은 청정한 마음입니다. 다녀도 참선, 앉아도 참선,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

이고 고요할 때도 본체가 평화로운 것입니다.

《689호 수덕사 주지 운산 스님》

●…… 곱게 물든 단풍잎은 꽃보다 더 예쁘다고 좋아할 하잖아요. 그렇게 대접받을 수 있게 늙어야 합니다. 병은 평소 생활 습관이 잘못되어서 생긴 것임을 알아야 해요. 사람들은 건강할 때 과식, 과욕, 게으름 등을 키워서 병 낫 일을 하더라는 것이지. 죽음이 왜 괴로운가? 잘못 살았으니 죽음이 두렵고 받아들이기 싫은 것입니다.

《690호 안성 석남사 회주 정무 스님》

●…… 나를 옆에 남에게 베풀어야 업을 소멸할 수 있습니다. 베풀려는데 돈이 없다 고민하지 말고 무재칠시(無財七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두 번째 보시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 '공'이 연관되지 않은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꽃이 피는 것도 공기와 물과 영양분이 뿌리와 줄기와 잎에 영향을 미쳐 생기는 일입니다.

《691호 서귀포 해관정사 조실 혜경 스님》

●…… <화엄경> 약찬제 108번째 '초발심시변정각(初發心時便正覺)'은 머지 않아 우리도 부처님과 같이 깨달음을 성취할 것이라는 뜻으로 읽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맡아도 모두 인연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것으로 인과법을 풀아가야 합니다. 계율을 지키겠다고 부처님 앞에서 굳게 약속했다면 지키는 것이 당연하지요.

《692호 적지사 주지 성웅 스님》

●…… 불살생(不殺生)계는 자비를 키우고, 불투도(不偷盜)계는 복덕을 기르며, 불사음(不邪淫)계는 청정한 삶을 유지하며, 불망어(不妄語)계는 진실된 삶을, 불음주(不飲酒)계는 지혜롭게 사는 길을 뜻합니다. 살생은 목숨 가진 것뿐 아니라 남의 아이디어를 사장시키는 것도 살생이요. 살생 없는 수준을 넘어 생명을 살리고 자비심을 지니는 것이 진정한 불살생계지요.

《693호 통도사 영축을원 율주 혜산 스님》

●…… 깨달음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라도 깨친 자가 부처님입니다. 우리도 그 법을 깨치면 부처님보다 못할 것이 없어요. '어떻게 부처님보다 훌륭해질 수 있는가' 라고 의문을 품겠지만, 그런 기개와 분심을 가지고 공부할 해야 대도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694호 통도사 취운선원장 약산 스님》

●…… 도를 이루고 싶으면 가난부터 배워야 합니다. 청정한 계율을 견지해 꾀범하지 말라는 부처님 최후 유훈은 불교의 생명이지요. 자기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참선 공부요, 모든 사물을 대함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 또한 참선공부입니다.

《695호 금각사 주지 만수 스님》

●…… 중생을 죽이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자비심으로 뜻 생명을 제도하고, 도독질을 하지 않는



## 진짜 적은 '알지 못하는' 데 있어 잘못 살아서 죽음이 두려운 것

것은 물론이거니와 보시를 함으로써 복덕을 쌓아가야 합니다. 불음주계(不飲酒戒)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술을 먹음으로써 잘못을 저지르기 때문에 금하는 것입니다.

《696호 해인사 극락전 한주 도견 스님》

●…… 우리 인생의 목표는 지혜의 완성이며, 지혜 완성의 첫 시작이 바로 계율을 지키는 것입니다. 참선을 하려면 계율부터 실천해야 올바른 참선이 됩니다. 계·정·혜 삼학의 순서를 지켜 수행해야 지혜가 완성됩니다. 부처님 법을 보급해서 세상이 변하는 것은 좋으나 불교를 세속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700호 동국대 불교문화대학 학장 법혜 스님》

●…… 밖으로 구해서 내가 원하는 조건이 충족될 때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하는데, 그 행복감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는 거짓 행복에 불과해요. 거짓 행복을 얻는데 많은 고통이 동반되고 또 그 행복이 사라질 때 괴로움을 겪어야 하니 평생을 가짜 행복에 속아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참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가치관이 바뀌어야 하고 스스로가 만족지수를 배워가야 합니다.

《701호 조계종 기본선원장 지환 스님》

●…… 거짓 없이 살아야 합니다. 주인 된 마음으로 살아야 해요. 가는 곳, 머무는 곳, 있는 곳, 바로 그곳에서 주인이 돼야 합니다. 하루에 한 가지 선행과 좋은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항상 마음의 계

를 경계해야 해요.

《702호 익산 대웅화사 주지 혜산 스님》

●…… 약한 사람이 지금 잘사는 것은, 잠시 동안이나마 그 사람의 전생 선업의 열매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좋은 업을 짓다보면 언젠가는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이 분명하니 좋은 일 하는데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약한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이 바로 죄가 되는 순간이요, 착한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이 바로 복이 되는 순간입니다.

《703호 방곡사 회주 묘허 스님》

●…… 부처란 곧 본래마음이 먼 데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마음 밖에 따로 부처가 있다고 믿는다면 무량겁을 지나도록 장좌불와하거나, 하루 한 때만 식사하거나, 몸을 태우거나, 피를 뽑아 경(經)을 베끼는 등 온갖 고행을 해도 모래를 찌르 밥을 짓는 것처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받아들여려는 취사(取舍) 본별심 때문에 도(道)속에 있으면서도 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물속에 있으면서도 물맛을 모르고 있습니다.

《704·705호 범어사 조실 지유 스님》

●…… 목이 마르다고 소금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더 말라지는 것처럼 모든 것을 바깥에서 해결하려고 하니 고통이 끝나지 않습니다. 본래심을 깨달아 거처서 돈도 벌고 일도 하고 생활해야 진정한 행복이 있고 인생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됩니다. 일체 중생들이 모든 것을 아는 것 같아도 몰라서 이렇게

육신과 번뇌와 망상에 속아서 고통 받고 있습니다.

《706호 해인총림 유나 원각 스님》

●…… 수행이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들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해탈 열반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생사고해를 건너야 합니다. 스스로를 이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하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707호 죽림정사 조실 도문 스님》

●……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적어 아니라 무지(無智)가 적고 원수인 것입니다. 법문을 들으면서 머릿속에 담고 있는 고정관념을 버우는 것이 참선이며, 지금까지 지니고 있던 관념을 버리는 것이 참선입니다. 삶 그 자체가 그대로 선입니다. 어려움은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자신이 마음 먹은 대로 항상 잘된다면 오만에 빠져 세상을 알잡아 보게 되고 그것이 곤란에 빠뜨릴 수도 있어요.

《708호 화인선원장 대호 스님》

●…… 사람들은 대접 받기를 원하는데 이는 저마다 자기 대통령이라 우기는 것과 같습니다. 온국민이 대통령이라면 그 나라가 조용하겠어요? 뒷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의식도 말고 맡은 업무에 충실하 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라 서 있는 곳이 모두 진리의 자리(隨處作主 立處皆眞)'라는 말입니다.

《709호 동국대 선학과 교수 법산 스님》

●…… 생명의 세계에서 해탈의 세계로 들어가는 종교가 불교요, 사람 사람마다 부처님과 똑같은 능력이 있음을 믿고 자력으로 피안에 가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고, 나는 빛이니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고 설교하셨지만, 부처님은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일체법을 등불로 삼을지언정 남을 믿거나 남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710호 송광사 회주 법홍 스님》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투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 칼라지붕공사**

**칠포 대원사 성지 순례지**

용의크기 : 높이 20미터, 높이 2.5미터, 길이 108미터

사바세계 일체중생은 신비의 용을 친견 함으로써 번뇌 망상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일체중생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관세음보살님 42수 진언의 소원 성취를 증득하실 길장이 바로 **칠포 대원사 성지순례**이십니다. (칠포 해수욕장 15분거리)

신비의 상징, 길상의 상징, 불법을 수호하는 신용, 대한민국 최초로 거대한 용을 조성하였습니다. 용의 뱃속에 천불전, 일천불 부처님이 타고 계시며 용의 몸통속에 7만 7천 부처님을 봉안 할 예정입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禪)선종총본산**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607번지  
 전화 : 054)261-7777 / 팩스 : 054)261-6119

**강릉 인월사 담마선원 위빠사나 집중수행 안내**

지혜와 자비를 개발하는 불교명상법인 위빠사나 집중수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불교인 뿐 아니라 종교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푸른 숲향기와 목조 황토방 선원에서 깨달음의 휴식을 가져 보십시오”**

일정	지도	인원	대상
2009년 1월 10일 - 1월 16일 [6박 7일]	우 또대나 사야도	15명 (선착순)	일반인

■ 수행장소 : 강릉도 강릉시 경포 저동 6-2번지 인월사 담마선원 (황토방에 욕실과 화장실 완비)

■ 수행내용 : 좌선, 행선, 일상생활수행 매일 수행 점검을 위한 사야도(큰스님)의 면담과 법문이 있음

■ 입제 및 회합 :  
 • 시작 날 - 1월 10일 오후 5시  
 • 끝나는 날 - 1월 16일 오전 12시

■ 참가비 : 15만원 (우체국 201780-01-001463 예금주: 담마선원)

■ 준비물 : 수행에 관한 북장, 방한술소, 세면도구, 필기도구

■ 문의 및 접수 : ☎ 담마선원 033)644-1686 email:dhamma53@hanmail.net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바로보인 선문염송 12권 출간**  
 권별 15,000원

전 30권중 제 12권 출간!  
 전통보다 더 많은 공안도리를 결집한 선문염송.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평안중사의 안목으로 1,454칙의 본공안을 한 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달다 전강 대선사 법어집** 15,000원  
 이제는 전설이 된 한국 근대선의의 거목 지혜제일 전강 대선사님의 최상승법과 예리한 지혜, 선기로 넘쳤던 삶. 전강 대선사님의 법문과 일화를 대원 선사님이 다시 보았다.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정맥선원 선가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정맥선원 반야심경 051-503-6460  
 02-3494-0122 www.zenparadise.com